燒酒工場爆破로 職工六名卽死

술만드는긔관이폭발되어 종업원다수가사상하엿다

◇咸南北青의大慘事

지난십이월이십팔일 오전 열한시경에 함경남도 북청군북청면 하서리(北青郡北青面下書里) 조선소주양조회사(朝鮮燒酒釀造會社)의공장에서는 술만드는데 쓰는 긔관이폭발되여서 삐마솔 종업중에잇든 조선인직공 여섯명은그자리에서 참혹히 즉사하고그외에 중상자십팔명 경상자 팔명을내엿다하며 더욱이 그날은 장날(市日)이엇든 까닭에 긔관이폭발되는 큰소리로 말미암아일시에 만흔군중이 모혀드는 등일대혼잡을이루엇다하며부상자는전부 그부근병원에수용하야 방금계속수술중이라는데피해액은약일천원가량이라더라(북청)

日人訓導問題로 文川青年奮起

군당국에처치방법질문

함남문천공립보통학교(咸南文川公立普通學校)일본인시뎐(柴田)훈도와하뎐(鶴田)훈도가 조선인을 모욕한문데에대하야 문천청년동맹(文川青年同盟)에서는 질문위원삼씨를 선뎡하야 학교당국에 그처치를 질문하기로되야 지난륙일오후한시경에 질문위원박재훈(朴戴勳)씨외이인은문천군수김형태(金衡泰)씨를방문하고 이에대한 조처방침을질문한즉

相當措處할터

하회만기다리라고 郡守金衡泰氏談

이사건에대하야는도당국에서도이미 출장됴사하얏고 군령에서도 보고하얏스니 물론상당한처치가 잇슬줄암니다 시뎐훈도는 벌서 다른곳으로전근이 되게되얏스니 하뎐훈도만 처치하면그만일터인데 이도불원간 상당한방침으로보내도록할터이니하회를기다려주시요(문천)

機關紙經營의 京城青年會

기타부대사업을 대대뎍으로계획

시내재동 팔십사번디에잇는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를 중심으로 각디방청년단톄(各地方青年團體)와호상협력하야 잡지청년의성(青年의聲)을 발행하려고 벌서수개월전부터 그에대한제반준비에 분망중이더니 이제야비로소 성숙의서광이 비치어 래삼월 초순경에는 창간호가이세상에 출현하리라는데 그내용방침을드르면 긔관지 청년의성(青年의聲)외에도 청년운동에 적절한 판프레트、리브레트등을 발행하고 강연회(講演會) 강좌(講座) 연구회(研究會)를 각디에수시로 개최할터이라하며 더욱순회문고(巡廻文庫)와 도서종람소(圖書縱覽所)를 설치하고 해내해외(海內海外)에 연구원(研究員)을 파송하야 일반무산청년으로 하야금 사회뎍교육(社會的教育)과 정치뎍훈련(政明的訓鍊)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운동의진영을 한층더굿게할터이라하며 그긔본금은 총액십사만원이오 사무소는 재동팔십사번디라는데 책임사원은 다음과갓다더라

庶務部 宋琫瑀 朴海鷗 金有善 金平主 編輯部 李玟漢 李赤曉 崔承 李亮 事業部 金平山 李圭宋 申周極 吳大根 森島 宣傳部 李浩 朴容大 姜아근냐 金灐

消防隊의暴行

일반의비난이 [illegible]

지난륙일 경북선산군 [illegible] 北善山郡 [illegible] 에서는 소방조출초 [illegible] 치고 긔부를모집하려 [illegible] 에 귀미면원평동 [illegible] 에사는 신호철 [illegible] 에가서 주인이불친절 [illegible] 유로 소방대원이십여명 [illegible] 들어가 그집주인되는 [illegible] 철을잡어내여 무수이구타 [illegible] 로 그안해되는부인이 [illegible] 급함을보고 싸홈판에드 [illegible] 기로써 남편을구하랴다 [illegible]

敦化東部에 學校新設

재류동포들의 팽창한교육열

북만돈화현(敦化縣)디방에는오륙년동안에 우리동포들이 사백여호가 살게되엿는데 유지들이 교육에 만히힘을쓰와스며 이제 돈화현의동반부(東半部)에잇는 여러동포들이 원흥학교(元興學校)를 창립하려고 힘쓰는가온데 [illegible] 에여러가지로 신고와 [illegible] 고하고 명년새학긔부터 [illegible] 에 뎡인데학제(學制)는 [illegible] 로 뎡하고 교육비는 [illegible] 으로한집에 삼원식 [illegible] 스며 학교 직원을 [illegible] 는데 교장박병국(朴 [illegible] 감리주석(李周錫)학감 [illegible] (崔元道)재무김홍렬(金 [illegible] 사장리승래(李昇來)찬 [illegible] 우(林能雨)외 창립원 [illegible] 라하며 이원흥학교에 [illegible] 락(村落)은 사하연(沙 [illegible] 도랑자(頭道溝子)이도 [illegible] 道溝子)삼도랑자(三道 [illegible] 교하(大橋河)랭수천자 [illegible] 子)고산자(孤山子)까지 [illegible] 일곱촌락이라더라(북만주)

朝鮮人漁業者의 死活問題再燃

日人의發動機船漁獲

도당국에서금지한것을 다시허가를얻고자활동

작년부터 일본인들이 발동긔선(發動機船)스를두척을 조망(打瀨網)과수조망 [illegible] 으로 명태(明太)잡이에 [illegible] 야조선인의 재래어업 [illegible] 방해를시침으로도당국 [illegible] 에서 본년이월십일까지 [illegible] 선의명태잡이를 금지 [illegible] 은이미보도하얏거니와 [illegible] 조직된발동긔선조합에 [illegible] 장과

부조합장

을비 [illegible] 남도령(咸南道廳)에 [illegible] (新浦)의북과호도(虎 [illegible] 서고기잡이하기를청원 [illegible] 그역시 도령에서 허가 [illegible] 니하얏든바 동조합에 [illegible] 총독부(總督府)에파견하 [illegible] 국장과 수산과장을방문 [illegible] 극력운동한결과 동국에 [illegible] 을 파견하야 실디됴사를 하얏다는데 동조합에서 청명서(聲明書)를 [illegible]

작성하야

당국과여론에 [illegible] 하다는바 만약 발동긔선의 어업허가가 된다하면 조선 [illegible] 의 어업에는 다시더업는 [illegible] 과 공황을 이르킬터임으로 [illegible] 종사하는 당사자들은방 [illegible] 을 강구중일뿐아니라 일 [illegible] 자들은 조선인 어업자의 [illegible] 데라하야 크게 공황중에 [illegible] 라(원산)

貨車轉覆

개천렬도에서

[illegible] 평남개천렬도(价川鐵道) [illegible] 룡흥리역(龍興里驛)뎐 [illegible] 鐵器)부근에와서화차두 [illegible] 칸이 탈선복(脫線顚覆)되엿는 [illegible] 자는업섯스나 일로인하 [illegible] 오십분이련착되엿다더라

토굴속에서 조선인청년이 轢死

[illegible] 토성(土城)역사이에잇 [illegible] 을오후세시경에정의선개 [illegible] 차에치인것을발견 [illegible] 렬차가운대에는 련령이 삼십사오 세되여 보이는 조선인남자 [illegible] 치여죽은것을 선로공부가발견한후주소성명과원 [illegible] 하됴사중이라더라

『博士』의學位를엇고자 다시慶大로가겟소』

『독터』는박사가못됨으로 경대에론문을데출한다고

◇獨逸『독터』鄭錫泰氏談

석간긔보=본래 내과(內科)를연구하다가 내과에도가장 큰관계가잇는세균 학을 연구하고자독일에서는세균학을연구한것이외다그리하야『독터』라학위를어덧습니다 그런데이『독터』를 박사(博士)라고번역하는 모양이나 실상은 박사가못되는줄로 암니다 그럼으로나는박사로행세하지 아니하랴고 합니다 대개이『독터』는 독일에서 대학만 졸업하고 론문만데출하면 철학이나 문학이나 기타엇더한과학을 물론하고 누구든지 될수잇슴으로 이것을 박사라고하면 공부한독일사람은 박사아닌사람이 별로 업슬것이외다그뿐아니라『독터』이상되는학위가 잇슴으로『독터』가 박사라고는말하기가어려운줄암니다 박사라는학위를 엇자면 적어도칠팔년동안 연구하지 아니하면 못됩니다 하여간『독터』를우리나라말로는 무엇이라고 해석하엿스면 조흘는지 매우 곤난하나『독터』를 박사라고일반에게 오해를사지 안키위하야나는『독터』라고말하엿습니다오다가일본신호(神戶)에서도 동포들을만나서 박사라고 하는말을 드럿스나 나는박사가 아니라고 말하엿습니다 그럼으로금년삼월경에 다시 동경으로 가서 경응대학에 론문을데출하야정식박사의 학위를 어드랴합니다

二子一女를버리고 夫婦가踪跡杳然

어린세생명이참혹히 죽을디경에이르럿다

경북문경군 석봉리(慶北聞慶郡石鳳里) 변서방(卞書房)이란자는지난십이월 십일경에 자긔안해와가티 간곳을알수업시 되얏는데 그집에는 십삼세된계집아이와 십세된사내아이와 다섯살된사내아이의세명이남어잇는바먹을것도업고 배일것도업서 어린것들이 어머니를 부르지즈며 울고잇는광경은 참아눈으로 볼수업는참경에 잇슬뿐 아니라그대로두면 그리다가 애처롭은세생명이 참혹하게죽을 디경인바동리사람들은 그아이들의 구제책을 강구하는동시에 일변으로는그의 부모를수색중 이라는데그아이들은 지금잇는처의 몸에서나흔 자식이아닌바안해 의말만듯고그와가티 내외가 도망한것인듯하다더라(상주)

本夫毒殺犯이 無期懲役을不服

간부간부두명이공모하고 본부에게독약을먹여살해

京城覆審法院에控訴

함경북도경원군(咸北慶源郡)에 본적을두고 중국혼춘현 흥인향흥인사리만자(中國琿春縣興仁鄉興仁社里灣子)에 주소를둔박어복녀(朴於福女)([illegible])와 함경북도온성군(咸北穩城郡)에본적을두고잇든최양성(崔陽成)([illegible])등 두명은살인죄로함경북도청진디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작년 십이월 말경에 각각 무기징역의 판결언도를밧고 다시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공소를 뎨긔하엿다는데 그사건의 내용을듯건대 최양성은지난대정십삼년 십월경에 상처한후독신생활을 하야오든중 사세에그곳황택근(黃澤根)과결혼하야 그동안사러오는 권긔박어복녀를 작년사월경부터 가통하기시작하야 륙월말경까지 계속하야 오다가 본부황택근에게 발각되야 항상감시를 밧게되는고로이것을

거치적

어리게 알고황택근을 살해하야업새고자 박어복녀와공모한후 작년칠월사일오전에 박어복녀로하야금『비상』이라는독약을아츰밥에 석거먹엿스나 분량이작기 까닭에다소신톄의 쇠약을주엇슬뿐이오 사망치는안엇슴으로 그후 간부간부들은다시 공모한후 그달십일밤 열두시경에 최양성이가

황택근

의집에침입하야 취침중에잇는 황택근을 곤봉으로구타한후 노끈으로 목을졸라매어서무참히죽인사실이라더라

京城府學校費評議會第三日 甲論乙駁無所得

부당국태도의완만은물론 의원들사지도두대로갈려

경성부 학교비평의원회의는 개회하던 첫날부터 회장안의 공긔가 긴장하야 데일일 데이일은 아모 결뎡함이업시 산회한후다시 데삼회의는 팔일오후두시부터 개회하랴하엿스나 오후세시가되도록의원은

아홉사람

밧게출석치안엇슴으로 개회하지못하고 기다리든중 세시반이되야 겨우출석자가 열명에이르럿슴으로 마야의장(馬野議長)으로부터개회의선언을하고개회하자즉시방대호별할 삼반원을증수하는동시에 이십만원의긔채(起債)를하야 영구한방책을 세우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장시간의

설명이잇스매 한편에서는 학교비증수와 긔채를하는것보다 목뎐의 입학난을 구하랴면국고와디방비(地方費)의보조를 바듬이가하니 부당국에서는성의것총독부와교섭하야주기를 바란다고 량편의의론이 격렬하엿는데 다시 양편에서는 우리의 데안한것이 실현될때까지본예산 협찬을 연긔하자는의론까지생기여

갑론을박

(甲論乙駁)으로 장내는극도로긴장하야 부에 데출한예산안은 협찬할희망이 보히지안음으로 마야의장은 이러나서본회는여러가지형편상으로보아 연긔할수가 업다는것을말한후 오는삼월경에 교육됴사회(教育調査會)를열어그회에서 모든것을 원만히됴사하여가지고 처결함이가하다고 말한후 휴회를선언하니 때는다섯시오분이엇는데 다시 다섯시이십분경에 개회를한후 구일오후두시에 계속개회하기를 선언후폐회하얏더라

薄命한 九歲兒

륙십로친과 표랑하다가

길에서부친을여히고 호텬망극을부르지저

맹렬히불어오든 찬바람도 병인의신년을당하엿것마는아모인사도업고 빈한한사람에게는 일뎡의동정도업시 자긔의 긔세만을 일층더하야 오고가는 사람으로 하여끔 주먹을부르쥐고 길을닷게하든 일월삼일의 태양이서산에걸리엇든 오후네시반경에 황해도재령군재령면 남뎡리(黃海道載寧郡載寧面南亭里)가로상에나히가 딸구세가량되야 뵈히는 어린아이가

백발로인

의시톄를끌어안고서 울음도울지못하며 긔한을못이기여 당장에 절명이될듯한참극을 연출하야 통행하든사람들은 치움도이저버리고 자연히그곳에서 길을멈추게되야 측은한감상을 금치못하게 되엿든 사실이잇섯다 그는과연 어떠한로인과 어린아이인가? 지금에자세한내용을 보도할진대 본적을 황해도장연군읍내면 설산리(長淵郡邑內面雪山里)에둔 장순길(張順吉)([illegible])은 일즉이 안해를

영원의길

로리별하고점점 곤난함으로자긔의아들 당년아홉살되는 아이를 다리고수원에 불과하는 미천을가지고 행상을 빙자로서 촌촌면면의 문전걸식으로 부유자(老父幼子)가 손목을 맛잡고온갓고생을 다하야 수일전에재령읍내(載寧邑內)에도착이되엿든바일긔는 점점치움을 부르짓게되얏스나 변변히 옷도 입지못하고

일푼의돈

도업는그는렴치를불고하고읍내(邑內)모모려관이며 또는모모의 큼직큼직한집에가서 애걸하엿섯스나 그도 또한따뜻한 동정을 엇지못하야갈바가업시 가로상에서방황하다가 수년을 격하야영양이부족하든로인으로서 쓰라린 사정과긔한을못이기여 드듸여 길가에서 업더저벌벌떨다가 모진 목숨이 끈허젓나 시톄는재령면 사무소에수고를끼치게되엿는바그시톄를 끌어안고잇는

그의아들

은자긔부친의 말년득남으로써해를못지내여모친을여히고설상가상으로반병어리(半啞者)가 되야 말까지통치못하야오직자긔의로부(老父)를의지하야 손목을 쥐이고생명을계속하든 그로서 일조、부친까지 그와가티 길가에서영원의길로보내고 어린가슴에 사못친설움이야 호텬망극할것이다 그리나어느누가

보호양육

하겟다는유지도업다 그리하야 그는위선재령면사무소에 보호한바 되엿스나 과연 그의장래가 엇지나되려느냐? 박명한구세유아의 운명이여!(재령발긔자)

馬山에쓰리團

청년삼명을데포

마산부행뎡(馬山府幸町)일본사람 건내수부상뎜뎜원 건내광웅(建內壽富商店店員建內光雄)은 지난사일오후 두시반에 당디식산은행지뎜(殖産銀行支店)에서 수형(手形)으로현금천원 (現金千圓)을교환하야 포켓트에너코 잠시 다른볼일을보고 도라서서 포켓트에 손을너허본즉 돈이업서 즉시 소관경찰서에 고발을하엿는데 고발을밧은 경찰서에서는 즉시수색에착수하야 활동한결과 오후열두시경에 부내수뎡(府內壽町)어느집에서범인을 잡엇는데 그동안에 백여원을쓰고남어잇는 돈팔백칠십원은 압수하엿는데 범인의 주소성명은다음과가트며 그범인은당디경찰서에서취조중이라더라

本籍慶北遠城郡遠面飛山里 住所不定無職 朴春燮(二九)
本籍全南麗水郡栗村面沙項里 住所不定無職 愼成實(二七)
本籍慶南昌原郡邑內面直洞 住所不定無職 鄭文生(二七)
(마산)

仁川女青의 懇親禁止

과자까지압수

인천녀자청년동맹(仁川女子青年同盟)에서는 칠일오후[illegible]시부터시내외리로동학원(勞働學院)안에서 신년 간친회(新年懇親會)를열라고 모든준비를착착진행중이든바 당일오후 한시경에 인천서고등계주임(高等係主任)이하 총동원으로현장에 달려와 간친회장이라는 조희조각을 떼고 무조건으로 간친회를해산식히며 인천녀청의장식힌 과자봉지와 푸로그람까지 압수한뒤에 장내에모힌 여러사람은 한아도 내여보내지못하게하고 동동맹위원 손단(孫丹)외이인을 동서로동행하야 여러가지 심문이잇섯다는데 권긔손단씨는 말하되 이번들은 너무나 무리한압박입니다 원래인천녀청은 세간이 다아는바 단톄인것도불구하고 인천서에서는 인천에녀성단톄는 시인치안켓다고 어리벙벙한수작으로눌으랴고만하니 대관절 집회금지인지해산인지 분간을할수 업슴니다하더라(인천)

◇新郞新婦 강성규(姜聖奎)군과 리뎡희(李貞姬)양의화촉성뎐은 금구일하오세시에 시내 안국동(安國洞) 례배당에서 리강원(李康原) 목사의주례로거행 하리라고

휘파람

▲보은옥천간 (報恩沃川間) 뎡긔운행하는자동차는공장이엇지나자조나는지 지난일일오후세시에보은에도착힐목천발자동차는이십여번을고장으로뎡거 하면서▲ 겨우화리진(花利津)에와서 보은에서 오는 자동차를박구어타고가다가그것도그모양으로 발동이 되지아니하야 승객들이 밀어서발동을시켜오다가물도커지못하야뒤에서 자동차와충돌이되야승객이혼이낫다▲그나마도나중에는영영요지부동이되야다른차를보은에서 갓다가 타고왓다 그런데뎡거한번수는 겨우 사십이회이엇다고 ▲자동차가아니라 부동차(不動車)라는것은승객들의 입에서런하야나오는말

滿洲踏查(十)

李涵

十月二十六日 天氣가매우淸朗하다 同賓縣城에서 南쪽으로八里假量이나되는 石頭河子라는地點에 同胞나섯집이잇다는말을듯고차저갓다 縣城南에東流하는螞蜒河는正北으로轉流하야 松花江으로들어가는데木船通航이三百里나된다 石頭河에는三年前에 同胞들이들어와살기를비롯하는데 地租는每晌에白米八斗(每斗四十五斤)식주기로하엿스며 小川을導하엿기때문에 水田十晌以上은더할수업다하니 此處도亦是旱田에作農을아니하고는 多數히살수가업는데 旱農은大利가업다고한다

午後五時에縣城에들어와잣다

十月二十七日도 天氣가溫和하다우리두사람은 同賓縣城에서東으로八里가되는 東柳樹河에到着하야 同賓全境에散在한同胞들이公立으로維持하여가는普榮學校를차저갓다 校舍는四間(每間長이十六尺廣이十四尺)이며 學生은四十名인데 五學年制에 幼稚班이잇고校長은全一淸 教師는朴世彬(兼學監) 崔正國(兼財務) 許侃龍諸氏라한다 教科書는모다 謄寫版으로印出하얏는데 教師들이밤이면夜學生을가르치고每個月에十五元에不過한薄한薪水費를바드며밤낫을不拘하고이러케애쓰는것은참으로同胞의前途를爲하야 誠을다하는것이라하겟다 今年의學校經費는一千一百元이라하며그金額은 水田每晌에五元式收合한것이라한다

學校잇는村에 同胞九戶가살며水田은二十晌(每晌二千坪)을耕作하는데 每晌에서稻子(或稉子니中國人이하는말) 二十五石(每石二百五十斤)平均을收穫한다하며 一石에白米四斗(白米一斗가四十六斤)가나며價格은每斗에四元이라한다

鄭淵氏는 一般同胞들을會集하고『우리가아주죽지말고 잘히살아보자』라는演題로長時間熱辯을吐하엿다 紀念舘에對한誠捐은이곳에서 百餘元이엇다 教師許侃龍氏는 今春에寧古塔에서 大震青年會를 發起하야無限히努力하다가 此處로移留한後教鞭을잡고 그와가티애쓰며今年에 內地同胞의水災救濟金은同友青年會를組織하얏다이곳에서 募集을發起하야 金貨로二百餘元을 收合하엿다하니 참으로사랑이 넘고 가슴이다는同情이 다하겟다

五年前에申泰錫趙鳳均諸氏가 이땅을어더 水田을하기시작하얏는데 地는一晌地에白米八斗이며 논쌀(볼내려오는곧)實까지 每晌에九斗假量이라한다 이러케 農作을하여가지고 社會에對한義務金 教育費 中國人保衛團費 其他무슨救濟 무슨義捐을다하여가면서도 生活이저이裕足하니참으로理想鄕의滿洲도 일죽이온 同胞들은樂園의快味를맛보는것갓다

본사를래방한 조도뎐대전배스켓뽈팀 ‖ 팔일오전본사에서촬영 ‖